



계곡의 국수버섯 3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한 계곡에서 식용버섯인 국수버섯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상국기자

제2공항 예정지 목적의 사용 '수두룩'

도, 2017~2018년 실태조사
 184필지 65만㎡ 조건 위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일대에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토지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648필지(90만㎡) 중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92필지(32만7000㎡)를 적발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시는 2017년에도 제2공항 예정지 일원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722필지(121만5000㎡)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 92필지(32만8000㎡)를 적발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후 농작물을 심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적발 건수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일대에서 거래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매해 발생함에 따라 시는 올해도 6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허가구역 지정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허가받은 토지 640필지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성산읍 일원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투기 예방 및 지가 상승 억제에 위해 2015년 11월 1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도는 2018년 11월 해당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1년 11월 14일까지 3년 간 연장했다. 성산읍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서귀포시 고한 후 실제로 나무를 심지 않고 방치된 경우와 농업용으로 허가 받은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코로나19로 제주관광객 크게 줄었다

심각단계 100일동안 전년보다 218만명 감소

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최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2만2000명 가량 급감했다. 특히 심각단계가 시작된 지난 2월 말 이후 100일 동안 제주방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17만7500명 줄며 제주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심각단계가 내려진 지난 2월 23일 이후부터 이달 3일까지 약 100일간 제주방문 관광객은 197만5524명으로 전년 동기 415만3107명보다 52.4% 줄었다. 이 기간에 내국인은 지난해 369만3688명에서 올해 196만5477명으로 46.8% 감소했다. 외국인의 경우도 국제선 취항 잠정 중단으로 작년 45만9419명에서 올해는 1만47명에 그치면서 97.8% 수직하강했다.

지난 3일 하룻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만3883명(내국인 2만802명, 외국인 81명)으로 지난해 같은 날 대비 47.8% 줄었다. 중국인 관광객은 5명에 불과하다. 이날 국내선 운항도 185편이며 탑승률은 69.4% 수준이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첫 위탁채용을 시작했음에도 비율이 50%나 된다는 것은 큰 성과다. 앞으로도 위탁채용 확대를 위해 사학과 협의를 벌일 것"이라며 "임원은 정관 개정 이후 퇴임한 임원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이다. 향후 새롭게 선임된 임원은 정관에 규정된 기준으로 선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한라포커스 이석문식 '사학(私學) 공공성 강화' 어디까지

사학, 공적자금 받고 운영은 '맘대로'

도교육청 최근 3년 사학 법정부담금 100억 대납
 올해 교원임용 50% 개입...1차 시험 국한돼 한계
 사학 이사장 인사권 남용 차단 근거 마련 '주목'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이 사학기관 교원 채용에 개입, 공공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반면 권고 수준에 그치는 권한으로 인해 결국에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혈세 투입...인사권은 사학 '맘대로'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감사위원회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별회계 결산감사의견서'에 따르면 도내 10개 사학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제주도교육청이 대신 내준 경우는 2017년 33억 371만원, 2018년 35억329만원, 2019

년(가결산 기준) 35억7999만원으로 최근 3년간 100억원이 넘는다. 법정 부담금은 사학기관이 자신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 이들 사학기관이 인건비·보험료 인상, 수익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도교육청에 '재정결함보존' 명목으로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학기관도 있었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 받고도 교원 채용, 임원 선임 등은 사실상 사학기관 '맘대로' 이뤄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에 '위탁'을 맡긴 사학기관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위탁채용은 사립학교 채용비리 문

제 대책으로 교육부가 마련한 제도인데, 2019년 기준 위탁채용 비율 '0%'를 기록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세종, 울산, 인천 뿐이다. 전국 평균은 51.5%였다. 제주 사학기관들이 혈세를 지원 받고도 교원채용에 대한 독점권은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석문식 '개혁' 통할까=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7년 10월 23일에는 "일부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미흡하다"며 '사학기관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지난해 10월 30일에는 도내 모든 사학기관의 정관에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선임 방법 및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포함하는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교육청 요구사항을 100% 반영해 사학기관이 정관을 개정할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사학기

관 교원 32명 가운데 16명(4개 법인·6개 학교)이 제주도교육청의 '위탁채용'으로 선발됐다. 또한 임원의 경우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위탁채용 범위가 1~3차 시험 가운데 1차 필기시험에만 국한돼 있고 임원의 경우도 현재까지 해당 정관을 적용해 새롭게 선임된 경우가 없어 성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첫 위탁채용을 시작했음에도 비율이 50%나 된다는 것은 큰 성과다. 앞으로도 위탁채용 확대를 위해 사학과 협의를 벌일 것"이라며 "임원은 정관 개정 이후 퇴임한 임원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이다. 향후 새롭게 선임된 임원은 정관에 규정된 기준으로 선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유증기한 2020년 9월 30일까지

1731 7071 1255 8255
 CVC 0000 000 유효기한 09/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교육공백 최소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만7세이상 초중고 학생 1인당 30만원 상당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한시적 사업

지원대상 : 2020.5.13.기준 초중고 재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
 *아동돌봄쿠폰대상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30만원 상당 선불카드
 *지역 및 일부업종 제한됨
 *카드 유효기한: 2020.9.30.까지

신청방법 : 소속학교로 신청동의서 제출
 (1차 6/12까지, 2차 8/31까지 신청가능)

지급시기 : 2020.6월 중순이후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YouTube 제주도교육청 |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